







# 신임 보직교수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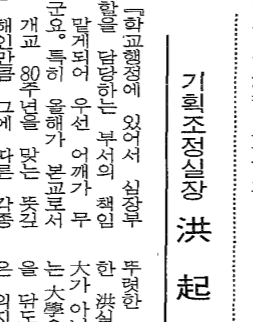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남 부총장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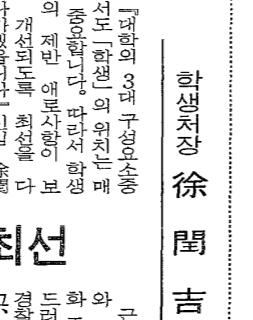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남 부총장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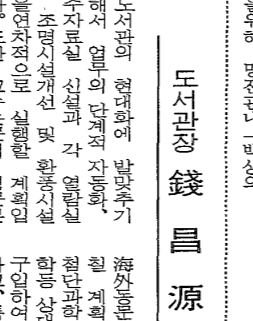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남 부총장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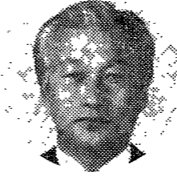


◇ 남 부총장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남 都 泳 汎

南 都 泳 汎



〈김영대학교학원장〉



〈북경대학교학원장〉



〈서울대학교학원장〉



〈북문대학교학원장〉



〈추법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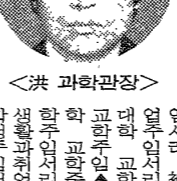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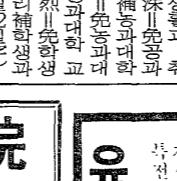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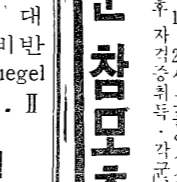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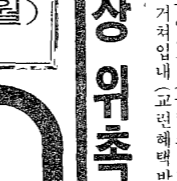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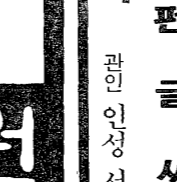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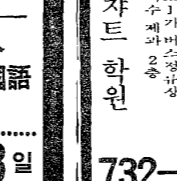
〈충남대학교학원장〉



〈충남대학교학원장〉



〈충남대학교학원장〉



〈충남대학교학원장〉

신임 보직교수 명단  
대 학 원 장 李仁鴻  
행정대학원장 吳德永  
경영대학원장 金鎔貞  
교육대학원장 吳國根  
문과대학장 崔昌魯  
이과대학장 趙熙榮  
법정대학장 金昌浩  
농과대학장 尹柱億  
공과대학장 鄭址鎬  
사범대학장 安炯秀  
이부대학장 金蒼培  
문리과대학장 洪起三  
법경대학장 朴先榮  
기획조정실장 徐錫球  
교무처장 權奇悰  
학생처장 李來秀  
총무처장 錢昌源  
비서실장 張漢基  
경주교무부장 洪致裕  
중앙도서관장 申昌裕  
박물관장 洪致裕  
과학관장 申昌裕  
공보실장 申昌裕

# 보직교수 대폭인사 단행

##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남 都 泳 汎 교수 등 임명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강사전원 학사·석사출신 미국인/10명완성)·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Active 회화  
ENGLISH 명작, 문법, TIME 영어총서·TOEFL·종합영어 영어회화·대학기초영어·영어실용기초·D.G.R 영어독해 VOCABULARY·AFKN 청취·TOEFL L/C·부여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연하는 일본어·프랑스어·NHK 영어회화·영어문법·영어문법·프랑스어·프랑스어·독어·독어·중국어·중국어회화  
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허교수 외국어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원전용·수료증 취득 과학적이고 정밀화된 PLACEMENT TEST를 통한 LEVEL 배정  
274-4000, 274-8821, 8822  
다들 학기 예약 접수 중  
중로 2가파고다공원건너편빌딩  
**파고다** 외국어 학원

## “大學院大學”으로 육성할터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학생·교수간 협력체제 확립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 제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

【본지 특파원 김성호 기자 특파】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 대학의 신임 보직교수들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진지한 작가  
**尹興吉**  
그가 들은 우리를 웃기 시작한다  
비늘 구멍으로 본 세상 살이  
2000년

이규형 캠퍼스소설  
**천천히**  
스포츠서울 인기연재중!  
학점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현세살이 더치는 폭소 웃자!  
삼삼하게 가슴을 치는 눈물포켓!  
오늘 719-2811 ● 국민은행/300쪽/3000원

통역·英·日 Guide  
● 外國語 高級化의 지원금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 실용교육)  
● 在學자가 취득득·아르바이트수천  
● 전당방음 高所得 새人氣 職種  
● 國際社會進出의 表現  
= 高級通譯要員專門教育機關 =  
交通部·서울市指定  
**現代觀光研修院**  
남영동 금성빌딩 2층(이문은행빌딩)  
715-0555, 716-0555, 713-0005

獨文化學院  
● 초·중·고급문법  
● 초·중·고급해석  
● 숙성반·유학시험반 대학 학원시험 대비반  
● 청취특강 ● Derspiegel  
● 독일인회화 (G. I. II, III, IV) (3월개강)  
▲ 독일유학안내  
※ 전철통학권 발급  
● 을지로 3가 전월과 2가네거리사이  
개강: 3월 3일(월)  
☎ 267-3569

(株)時事英語社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외국어 학원  
〈旧 현대 외국어 학원〉  
● TIME, 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상문 綜合英語, 英語實力基礎, 英文說解, 英語順解, 英文文, 日本語, 中國語, 日本語會話, Screen英語  
● 韓人會話-(Speak-Along English 英語會話)  
● 美人會話-(New English Course 英語會話)  
大學生·成人 英語·日語·中國語 수시등록  
개강 3월 3일  
파고다공원 정문 앞 (주)사시영어사 뒤 (273)4395~7-5081-2

軍·행정병 모집 차트·동판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관인상서에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고교리』
최근 고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사 내용 요약)

대학문화총서
대학문화총서 1. 메소포타미아 2. 메소포타미아 3. F.S. 마르티네스 4. 리디온 5. 리디온 6. 리디온 7. 리디온 8. 리디온 9. 리디온 10. 리디온 11. 리디온 12. 리디온 13. 리디온 14. 리디온

대학문화사는 現實과 理想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대학문화사 354-9935 354-9936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8-2

3低현상... 만병통치약 아니다
(광고 내용 요약)

東友塔
(광고 내용 요약)

나의 만민사상
(광고 내용 요약)

東友塔
(광고 내용 요약)

수필
(광고 내용 요약)

수필
(광고 내용 요약)

◇卒業有感

알품은 어미닭 심정...

어느덧 4년여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장을 앞둔 지금, 기쁨과 환희보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학생이라면 정없고 부모없는 고아와 다르게 무엇인지. 자유와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의 4년이라는 어찌된 운장 수모로 머릿속 비어있지 않은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마치 창녀가 처음 옷을 벗을때는 부끄러워 몸을 움추리지만 반복되는 행위에는 무감각해지며 결국에는 상품화가 되고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대학생활 중 배운 것이 있다면 플라톤의 정치철학보다는 최후의 까스에 면여되는 힘과, 강권 앞에서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무력감만을 배운 것 같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나는 어서야 한다는 국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내내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지내왔다. 하지만 불의를 정의라



어린 감의 한수도 들을 수도 없는 현실같이 씁쓸하기 만하다.

중공혁명 당시에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결국 미국 망명길에 올라 할로부러 추방을 받는 연극이었다. 그 마지막 대사인 "아버지가 조국에 대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였는데 조국은 땅

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항군을 더욱 늘리고, 지방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도 많이 확충했으면 한다. (기숙사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약점이다)

후배들은 좀더 자신에 충실하고, 시각을 유연하게 가지며, 겸허한 자세로 배움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어학과의

불 꺼지면 떠나리라

우물한 자업복으로 무장을 하면서 비로소 오늘아침 종업을 실감한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4년의 생활이 담겨져있는 실기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나와 몇몇 친구들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즐기려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전날까지 버틸거야』라고 버티며 각자 필요한 난방기구를 싸들고 모였던 친구들은 졸업 때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떠있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파란색의 상황을 실감한다. 평소 실기실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못됐던 H까지도 아쉬움을 느끼는 듯이 실기실에서 서성대다. 문득 어느 美大 졸업식장에서 본 해프닝 한 장면을 떠올린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아기와 놀며

이기가 놀다가 갑자기 책 보고 있는 나의 뺨을 때린다.

자기와 놀아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얼굴이 쳐다 보는 이십사개월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깨끗하다.

이 세상의 어떤 진실보다도 더 뜨겁다.



朴 冠 官

東岳路

아이의 손목을 잡아 매단질 때 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 없을까.

거기 없는 사람의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속살을 보여 주어 가슴과 가슴을 부딪다면 아이의 태모처럼 성숙해질 수 있다.

“혼자만의 역사에서 다수의 동참으로”

위에 쓴 시는 필자의 근작으로 오즈를 시도하고 있는 『八行詩集』 중의 하나이다.

순환하는 운하라고 믿는 생후 몇개월짜리 아이들도 자기 주장을 피는 걸 볼 수 있다. 하물며 어른들의 세계나 조직사회에서는 자기주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한쪽의 의견만 옳다 하고 다른 쪽의 의견을 배척하는 『흑백논리』가 너무나 무성하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타인과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東國漫評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수석졸업자와 함께

『나를 데려와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랑하고 싶을지다.

오늘의 이 영광이 있다가 저를 보살피고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고요.

1985년도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박충석(법경대·행정학과) 씨의 소감이



朴 鍾 石 君

『나를 데려와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랑하고 싶을지다. 오늘의 이 영광이 있다가 저를 보살피고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특히 감사드리고 싶고요.

1985년도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박충석(법경대·행정학과) 씨의 소감이

더 큰 명을

고생을 낙으로 삼으며 길러온 어머님께 존경합니다.

1980년, 몸소도 슬럼이던 날 음악에 첫발을 디디게

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조국, 분단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학의 문을 나서는 젊은이치고 흥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사회인이라는 명을 걸 나의 마음은 친근한 길기만 하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좀더 많은, 아니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는 없을까. 추마똥처럼 스쳐가는 서늘한 봄,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 봄은 젊음을 위한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채 대학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정지인들은 좀더 가슴 아파 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두꺼운 짐을 적극적으로 나눠 가졌으면 한다. 이 어두운 시대의 고통을 학생들에게만 떠맡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조국, 분단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대학의 문을 나서는 젊은이치고 흥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사회인이라는 명을 걸 나의 마음은 친근한 길기만 하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좀더 많은, 아니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는 없을까. 추마똥처럼 스쳐가는 서늘한 봄,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 봄은 젊음을 위한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채 대학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정지인들은 좀더 가슴 아파 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두꺼운 짐을 적극적으로 나눠 가졌으면 한다. 이 어두운 시대의 고통을 학생들에게만 떠맡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졸업생에게 주는 童話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눈이 날아서 멀리 내다 보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 아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서 바위로 떨어지지 그 과실이 내 죄악이고 곡식 밭에 밭을 갈아내지 않았을 때 그 과실이 내 죄악이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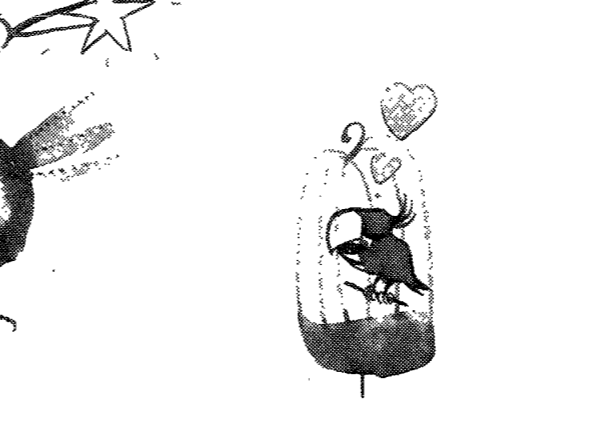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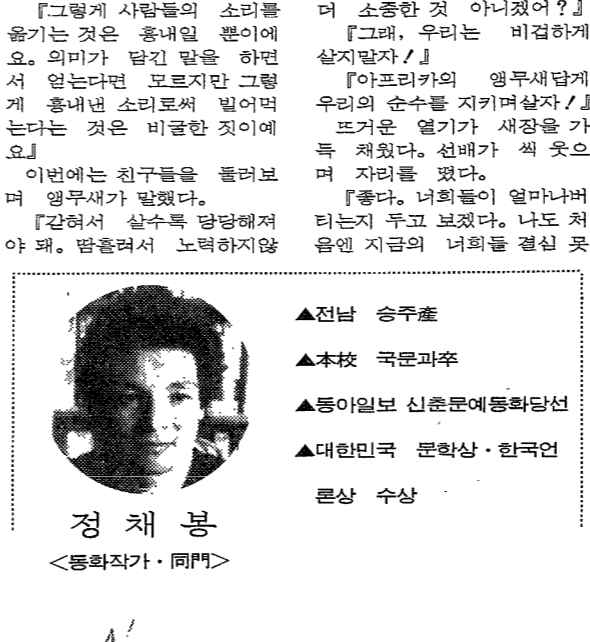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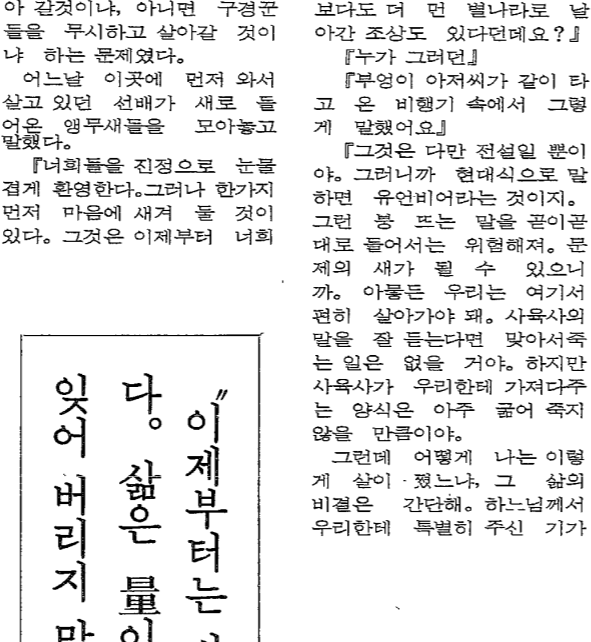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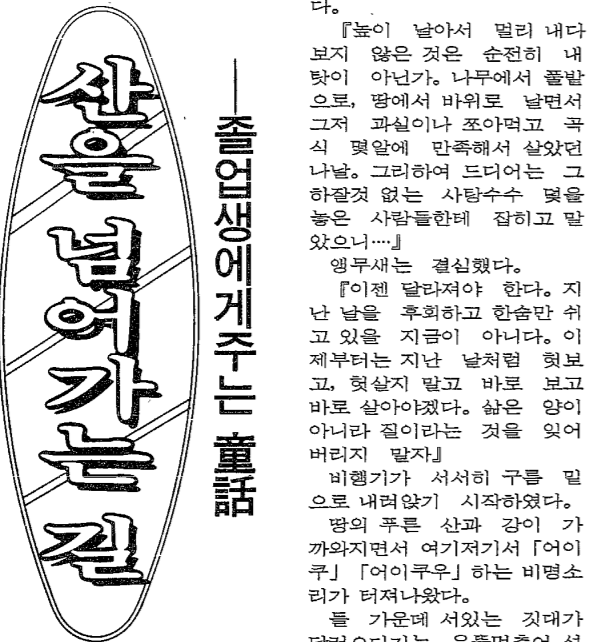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진실의 햇살이 밝히는 날, 우리모두 함께 부활하여 창공을 훨훨 날자구나...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후배가 선배에게 자신의 졸업식에 꽃다발을 갖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배는 순간 생각했다. 과연 졸업이 영광인가? 학문을 마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이성이 혼란에 빠진 것인가? 시커먼 졸업장은 절망과 허탈의 정태의상을 불과하고 거드름과 바보스러움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죽은 무공훈장처럼 후배에게 가벼운 모욕을 주려 했던 것이 갑자기 대학과 사회로 완전히 떨어졌다.

### 실적상 종합 간담회를 보고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삼양사(삼양식품)는 10월 11일(토) 오후 2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1955년 9월 실적상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본사 임원 및 각 사업부(식품, 화학, 제약, 기타)의 과장급 이상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9월 실적에 대한 종합 보고와 10월 실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1955년 9월 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9월 실적은 1954년 9월 실적에 비해 전 부문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식품 부문에서는 1954년 9월 실적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화학 부문에서는 1.2배, 제약 부문에서는 1.1배 증가했다. 기타 부문에서는 1.0배 증가했다. 이는 1955년 9월 실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1955년 9월 실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새가 날아온다  
인간  
삼양사가  
귀여우신  
작품

## 학생회비 삭감...학원自律 '표류'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비 삭감에 따라 학원 자율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비 삭감에 따라 학원 자율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비 삭감에 따라 학원 자율이 표류하고 있다.

## 대화가 새 갈풍이로 대두돼

### 名分の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대화는 새 갈풍이로 대두돼 명분의 논리적 근거 없으나 시적 발전하고 있다.

##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신인전 "전망지도" 기획취재가 진행되고 있다.

## 신인생의 부담 加重이 再考여지

### 師弟間의 대화만이 전투 아니다

【서울 13일 특파원 보도】 신인생의 부담 加重이 再考여지. 師弟間의 대화만이 전투 아니다. 신인생의 부담 加重이 再考여지. 師弟間의 대화만이 전투 아니다.

## 삼성은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온 뿌리깊은 거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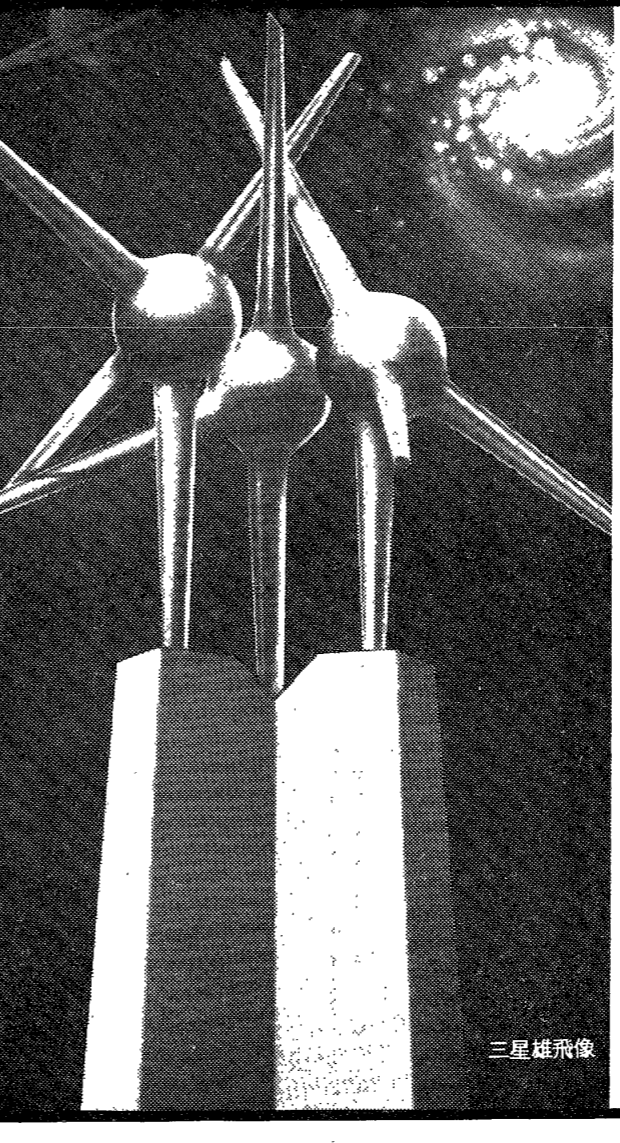
### 삼성은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세계와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26개 계열사는 젊은 인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보람찬 현장입니다.

인재제일, 인재양성 — 그것은 삼성의 동의어입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삼성 — 세계가 삼성을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온 뿌리깊은 거목입니다. 삼성은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세계와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26개 계열사는 젊은 인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보람찬 현장입니다. 인재제일, 인재양성 — 그것은 삼성의 동의어입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삼성 — 세계가 삼성을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온 뿌리깊은 거목입니다. 삼성은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세계와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26개 계열사는 젊은 인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보람찬 현장입니다. 인재제일, 인재양성 — 그것은 삼성의 동의어입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삼성 — 세계가 삼성을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온 뿌리깊은 거목입니다. 삼성은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세계와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26개 계열사는 젊은 인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보람찬 현장입니다. 인재제일, 인재양성 — 그것은 삼성의 동의어입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삼성 — 세계가 삼성을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경제와 함께 발전해온 뿌리깊은 거목입니다. 삼성은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세계와 겨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26개 계열사는 젊은 인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보람찬 현장입니다. 인재제일, 인재양성 — 그것은 삼성의 동의어입니다.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삼성 — 세계가 삼성을 국내 최정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